

26. 아가

‘노래 중의 노래’라는 의미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아가는 남녀 간의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한 연애시의 모음집입니다. 유다교에서는 과월절 축제 때에 읽히는 축제오경으로 전례에서 뿐만 아니라 연회와 혼례 때에 사용되었고 초기 시온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6,10)”은 가톨릭 레지오 마리아의 기도문(까떼나 후렴)에서 성모님께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아가만이 유일하게 남녀의 관능적인 사랑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가에 묘사된 남녀 관계를 순수한 성적·인간적 사랑으로 본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알레고리(우의적) 해석을 통해 유다교의 경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그리스도교의 경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였습니다.

사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남신들과 여신들 사이의 사랑은 계절의 변화와 풍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민족들은 대부분 성을 신성시하여 해마다 임금이나 사제가 신전에 거주하는 성처녀와 결합하는 의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의 신성화, 또는 신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이스라엘에서 아가는 자연의 풍요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성은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노래합니다.

아가는 연인간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과 사랑을 그리는 나와 너의 이야기이며,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야기이며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남자는 솔로몬 여자는 술람밋으로 나오지만 상징적인 이름이며 둘은 삶의 의미인 사랑의 기쁨과 고통을 드러내는 그 사람과 그 여자를 대표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현존과 부재, 만남의 환희와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나섬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충만한 상호성(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고독과 부재(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일치(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줘요.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전개됩니다.

이처럼 아가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남녀 관계를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인간의 성을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역센 것”이라며 죽음과 저승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를 끈질기게 쫓듯이 남녀 간의 사랑과 정열도 그만큼 강렬하고 분명하게 서로를 추구한다고 노래합니다. 이런 남녀간의 강한 사랑처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강하고 깊어지기를 희망하며 아가를 읽어봅시다.